

광주, 버스·지하철 이용 확 늘었다

지속적인 경제난과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걸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중교통 하루 평균 이용자는 34만6천5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만4천933명에 비해 6.7%(2만1천646명)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하철과 마을버스 이용자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각각 37.6%(6천872명), 38.7%(2천461명) 증가했고, 시내버스 승객도 4.1%(1만2천313명) 늘었다. 이는 현금과 무료 탑승자를 제외한 교통카드 이용자를 집

시내버스·지하철 환승 체계 정착 자가용 위주 → 대중교통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걸기도 꾸준히 증가

계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3개 축이 정착되면서 환승체계 구축 등으로 편리성이 높아진 데다 경제난 속에 교통비를 절약하려는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향후 간선급행버스(BRT : Bus Rapid Transit) 체계 도입, 도시

철도 2호선 추진 등의 사업이 예정돼 추진되면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3억5천만 원을 들여 4대 관련 연결국도, 제1순환도로, 양산지구~하남월곡지구 등에 대한 BRT 도입 노선망 선정 및 노선별 기본 구상안 등을 주내용으로 한 용역과제를 발주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건강을 챙기고 환경까지 고려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사회적 기업인 빛고을바이크사업단 김광훈 사무국장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광주전 자전거 전용도로 등 도심 곳곳에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며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의 연계를 고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광주시가 저탄소 친환경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천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석면 탈크’ 화장품 판매금지

식약청, ‘로제앙’ 5개 품목 회수

석면에 오염된 원료(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로제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석면 함유량이 100ppm 이상인 화장품에 대해 1과 2의약품·의류기기 업체 30여곳이다.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공급받은 화장품 업체는 ㈜로제앙이며 이 탈크가 사용된 제품은 ‘로제앙 휘니쉬 퀘이시 파우더’, ‘로제앙 더블웨이 콤팩트’(10호, 20호), ‘로제앙 퍼펙션 메이

크업 베이스’, ‘로제앙 퍼펙션 퀘이시 칼라’ 등 5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공급한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수입·제조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홍약품, 영우약품, 화원약품, 화일약품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업체 7곳과 ‘탈크’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이를 업체에 공급한 덕산약품공업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교통안전공단 ‘빔스’ 시행 9월30일까지 연기

자동차 종합검사통합시스템인 ‘빔스(VIMS)’가 국가전산망과 연계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4월6일자 6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제도 시행을 9월30일까지 전면 연기했다.

6일 (사)광주자동차검사장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이날 ‘빔스’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분간 기존 시스템대로 검사에 임하도록 일선 검사장 및 검사소에 지시했다. /이종형기자 golee@

니원침



제3회 오월어머니상 공모

(사)오월어머니집이 6일부터 24일까지 ‘제3회 오월어머니상’을 공모한다.

대상은 5.18 관련 유공자 가족을 제외한 국민 및 단체이며 모두 3명을 선정해 다음달 8일 시상한다.

접수는 (사)오월어머니집(062-227-0518)으로 하면 된다.

원천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광주충성중학교(교장 김용오)는 6일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경찰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갖고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를 다짐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29년만에 명예회복

5월 항쟁 때 숨진 박문규씨 5·18묘지 안장

이정근씨는 살인누명 벗어

29년 동안 고향땅에 묻혀 있던 고 박문규(당시 19세)씨의 유해가 가족들과 한 때 함께 살해했다는 누명을 썼던 이정근(64)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6일 오전 국립 5.18 묘지에 안장됐다.

박씨는 당시 이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이씨의 당시 해양경찰 3부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원일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경무관·직위해제)에게 징계 1등급을 인격으로 결격, 최근 해경이 공에서 혹은 입고 있는 옷이 벗겨 보여서 등 충동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정근씨는 살인누명 벗어

이씨가 범인이라고 했지만, 같이 간 친구들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해 그동안 진실을 알기 위해 갖은 노력해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박씨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등의 증언으로 지난해 12월 22일 5·18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군인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해 숨진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

살인누명을 써왔던 이씨는 “당시 신복면 이천마을 앞에서 박씨 일행과 마주쳐 담배를 건네줬을 뿐인데 갑자기 살인누명을 쓰고 모진 고문까지 받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1개월 옥살이를 하다 풀려났지만 그때 박씨를 멀리 떨어져 볼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원천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갯바위 낚시 강태공 부부 ‘122 구조’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고립된 중국인 부부가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눈길.

○여수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50분께 여수시 만덕동 앞 갯바위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중국인 부부가 밀물과 너울성 파도 탓에 육지로 빠져나오지 못하자 지인을 통해 해경에 구조를 요청.

○여수해경은 122해양경찰구조대 등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켰으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갯바위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30여분 만에 이들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

○주씨는 경찰에서 “휴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갯바위에 올라가 낚시를 했는데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몰라 고립됐다”며 안도의 한숨. /여수=박문규기자 ykpark@

초·중학생 상대 금품 갈취·폭행 잇따라

경찰, 광주 총장로 등서 10대 11명 검거

새 학기 들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초·중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서부경찰청은 6일 학원가를 혼자 걸어가는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Y군(15) 등 5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혐의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4일 오후 광주시 총장로 의류상가 앞 길을 지나다 강모(여·14)양 등을 인격으로 폭력으로 끌고 가 주머니로 위협하면서 현금 3만여원과 안경 등을 빼앗은 혐의다. /연합뉴스

의 의류와 게임기, 전자사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서부경찰청은 지난 5일 중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김모(여·15)양 등 6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4일 오후 광주시 총장로 의류상가 앞 길을 지나다 강모(여·14)양 등을 인격으로 폭력으로 끌고 가 주머니로 위협하면서 현금 3만여원과 안경 등을 빼앗은 혐의다. /연합뉴스

지난달 3일에는 광주우체국 인근 갤러리아 앞길에서 10대 중·후반으

로 보이는 학생 2명이 문구점에 들어 가던 화순 모 초교 6년 K(13)군 등 4명을 인격으로 폭력으로 끌고 가 폭행한 뒤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지난달 1일엔 동구 충장서점 앞 길에서 광주 모 중학교 1년 L(14)군이 10대 후반의 학생에게 현금 3만원과 신발 등을 빼앗았다.

경찰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보다 한 두살 위거나 또래도인데, 금품을 빼앗는 이유도 웬돈이 공에서 혹은 입고 있는 옷이 벗겨 보여서 등 충동적이었다”고 전했다. /원천석기자 golee@kwangju.co.kr

/김희정기자 khh@kwangju.co.kr

‘박경위 사망’ 책임

해경 간부 3명 징계

지난해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검문 중 발생한 해양경찰관의 억류·폭행 및 박경위 사망 사건 관련, 해경 간부 3명 징계를 내렸다.

해경은 6일 박경위 사망 사건 관련, 해경 간부 3명 징계를 내렸다. 박경위 사망 사건 관련, 해경 간부 3명 징계를 내렸다. 박경위 사망 사건 관련, 해경 간부 3명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문암동	대1138,211859	111억	62억	신축오일상업
문암동	대1701,211861	63억	36억	여사상
소촌동	대202,21387	64억	38억	7층점점
노2년	대883,22003	59억	4억	주유소기
지4동	대151,22123	2억	28억	2층의원
오지동	대131,21158	4억	2억	2층점
신안동	대88,22286	8억	4억	4층빌딩
송정동	대127,2175	5억	1억	원형4세대
고촌동	대3129,21779	31억	17억	휴게소
화동	대82,21147	4억	3억	원형2세대
오지동	대281,22281	7억	2억	2층점
농성동	대187,22688	28억	16억	7층빌딩
문암동	대238,21785	28억	16억	8층빌딩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문암동	대88,2118	43	16/1	1억7천 1억
문암동	대30,2115	32	20/16	9천5백 6천
문암동	대202,21387	27	15/4	7천5백 6천
문암동	대151,22123	32	16/16	9천7백 6천7백
문암동	대131,21158	23	13/4	4천2백 4천
문암동	대88,22286	24	17/3	6천8백 4천6백
문암동	대59,2211	32	21/2	1억1천 8천6백
문암동	대31,2175	31	15/11	9천 6천3백
문암동	대3129,21779	34	16/3	1억4천 9천8백
문암동	대82,21147	32	20/1	1억2천 7천6백
문암동	대281,22281	27	10/1	6천 4천2백
문암동	대187,22688	20	17/8	6천 4천2백
문암동	대238,21785	38	15/8	2억2천 2억1천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문암동	대66,2116	3%	2억	3층건물
문암동	대32,2192	7억	4억	3층건물
문암동	대107,21183	5억	4억	3층점
문암동	대88,2125	3%	1억	3층건물
문암동	대38,2187	1%	1억	3층건물
문암동	대43,2142	2%	1억	3층건물
문암동	대802,21387	64%	36%	7층점점
문암동	대46,2193	2%	1억	2층건물
문암동	대23,2111	1%	5천	단층건물
문암동	대106,2288	4%	1억	3층건물
문암동	대80,2105	2%	1억	4층점
문암동	대46,2151	1%	1억	2층건물
문암동	대216,2281	22%	12억	5층건물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최저가	비고
문암동	대28,2228	2%	1억	2층점
문암동	대276	1%	1억	2층점
문암동	대3818,21482	18%	12%	2층점
문암동	대85	1%	1억	2층점
문암동	대158	1%	1억	2층점
문암동	대150,21455	3%	1억	2층점
문암동	대153	4%	1억	2층점
문암동	대156	1%	1억	2층점
문암동	대325	2%	1억	2층점
문암동	대48	7%	3천	2층점
문암동	대282	8%	3천	2층점
문암동	대70,2129	2%	5천	2층점
문암동	대788,21813	26%	18%	2층점

생산물	면적	평당단가	비고
2중주거지(면적) 대지2333㎡	2333㎡	1111㎡	비고
금매매 12억5천만 원, 대지 12억5천만 원, 대지 12억5천만 원	12500㎡	12500㎡	비고

이젠 전기요금 걱정 끝!!

<그린100만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정부무상보조사업(100가구 선착순)>

☐ 상업용 발전소 용도인 고품격 단결정 모듈 설치
- 3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평균 월당 약3~400kWh(추정)의 전력이 생산가능

기준정기요금(태양광발전용 4kWp)	설치시 정기요금	절감요금	비고
10만원(약 460kWh) 일대	약 4,200원	₩ 95,800	월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설치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15만원(약 640kWh) 일대	약 12,400원	₩137,600	
20만원(약 860kWh) 일대	약 23,000원	₩177,000	

* 전력 생산량과 설치시 청구 요금, 절감 요금은 추정치로서 일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치자의 자격요건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용' 이고, 한전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 인 건물의 소유자
○ 신청자 구비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 임대증명서 - 한전전기요금 1년사용내역 - 표준계약서(인감시1도장날인)

☐ 태양광주택 설치시 무상보조금 및 자부담
○ 총사업비 중 - 국가 무상 보조 60%, 자부담 40%
○ 주의사항 -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09년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전문기업과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일괄시공(상업용 발전사업 절호의 찬스!!)
★ 영업딜러 모집

2008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우수전문기업 **승지전력(주)** 광주 사무소 062)605-9796 여수 사무소 010-9605-0091